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힘스(238490)

반도체/반도체장비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예한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스(238490)

OLED 공정장비 제조 전문기업, 해외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중

기업정보(2021/03/04 기준)

대표자	김주환
설립일자	1999년 01월 15일
상장일자	2017년 07월 2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OLED 제조용 마스크 공정장비

시세정보(2021/03/09 기준)

현재가	12,9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459억원
발행주식수	11,312,236주
52주 최고가	16,830원
52주 최저가	4,784원
외국인지분율	0.45%
주요주주	
김주환 외 13인	32.48%
SVIC29호신기술사 업투자조합	9.09%
자사주	1.28%

■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마스크 공정장비 독점 공급업체

주식회사 힘스(이하 동사)는 1999년 1월 설립 이후 일반 자동화 장비,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 및 납품하고 있다. 동사는 2006년 삼성SDI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 이하 OLED) 장비 협력 개발 이후 2009년에 OLED 마스크 검사기, 인장기 및 리페어기 등의 증착 공정용 장비를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고, 경쟁제품이 소수인 마스크 인장기 시장 내에서 동사의 제품은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는 OLED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마스크 공정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확대에 따라 중국 OLED 업체에도 동사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 OLED 수요 증가로 인한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세

현재 중소형 패널 시장에서 OLED는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를 거의 대체해 가고 있으며, OLED 수요 증가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체의 설비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어 OLED 공정장비 전문업체인 동사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OLED 산업을 COVID-19 극복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설비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 또한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매출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신규 장비 공급계약 체결

동사는 주요 거래처인 삼성디스플레이와의 OLED 장비 공급계약 외에도 2020년 3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우한 차이나스타와 120억 5,760만 원 규모의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1년 1월에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샤먼 티안마와 163억 7,800만 원 규모의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실적에서 호재를 보이고 있다. 동사는 중국 현지 고객에 대한 A/S 대응을 위해 2020년 7월 중국 법인을 설립하였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별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914.3	79.7	156.2	17.1	121.2	13.3	32.5	20.0	38.8	1,304	4,963	9.2	2.4
2018	354.6	-61.2	-17.1	-4.8	-10.2	-2.9	-2.0	-1.5	24.0	-96	4,647	-	1.0
2019	850.6	139.9	77.0	9.1	84.4	9.9	14.9	11.1	42.7	746	5,399	18.3	2.5

기업경쟁력

삼성디스플레이 독점공급 업체

- 2006년 삼성SDI와 OLED 장비에 대한 협력 개발 이후 2009년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장비를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비 공급계약 지속 체결
- 세계 OLED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마스크 공정장비 독점공급 중

중국 시장 진출로 고객 다변화

- 2015년 이후 OLED 시장의 참여국 확대에 따라 해외 수출 비중을 점차 확대
- 중국 업체들의 신규 설비 투자에 따라 OLED 장비 공급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 시장 대응력을 제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OLED 공정장비 기술 및 관련 요소기술 보유

- OLED 마스크 인장기, 검사기 등 OLED 장비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실적 보유
- 드라이버 및 컨트롤러 등 장비 요소기술 적용

연구개발 실적 및 지표

- 연구개발 투자비율 2017년 2.7%, 2018년 6.2%, 2019년 3.5%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수행
- 장비 및 요소기술 관련 국내 특허권 32건 보유

적용제품

주요 제품군

OLED 마스크 공정장비 OLED 글래스 검사공정장비

- OLED 마스크 인장기
- OLED 마스크 트리머
- OLED 마스크 리페어기
- OLED 마스크 검사기
- OLED 마스크 측정기
- OLED 입고스틱 검사기
- OLED 합착이물 검사기
- OLED 유효실 검사기
- OLED 플렉시블 합착 검사기

Non-OLED 장비

- IR 필터 검사기
- 펠리클 검사기
- 혈당측정시트 검사기

기타 부품

- 비전 모듈
- 비전 파트 부품

매출실적

- 2019년, 2020년 3분기 매출유형별 비중 (단위: 억 원, %)

매출 유형 및 품목		2019년		2020년 3분기(누적)	
제품 매출	OLED 장비	576.8	67.8	843.9	91.1
	Non-OLED 장비	61.4	7.2	8.8	0.9
	비전 모듈 및 부품	33.7	4.0	40.8	4.4
상품 및 기타 매출		178.7	21.0	33.2	3.6
합계		850.6	100.0	926.7	100.0

시장경쟁력

세계 디스플레이 및 장비 시장 현황

-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단위: 억 달러)

	2019	2020(E)	2021(E)	2022(E)	2023(E)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1,080	1,155	1,205	1,280	1,322

(단위: 억 달러)

	2019	2020(E)	2021(E)	2022(E)	2023(E)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	152	150	84	80	127

- 디스플레이 시장은 모바일 기기 등이 사용되는 중소형 패널 부문에서 OLED가 LCD를 빠르게 대체
- 대형 디스플레이 또한 전력 소모가 적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나, 최근 중국 업체의 장비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세 예상

최근 변동사항

OLED 수요 증가로 국내외 업체와 공급계약 다수 체결

- 2020년 3월 우한 차이나스타와 약 120억 원 규모의 OLED 장비 공급계약 체결
- 2021년 1월 샤먼 티안마와 약 163억 원 규모의 OLED 장비 공급계약 체결

해외 매출실적 상승으로 OLED 슈퍼사이클 기대

- 중국향 OLED 장비 투자가 증가하여 2020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전망되며, 2021년에도 OLED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수익성 개선 전망

I. 기업현황

해외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OLED 공정장비 전문업체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사는 OLED 장비를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OLED 글라스 공정의 검사장비 및 기타 측정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 업체의 OLED 설비 투자 증가에 따라 주력 제품의 해외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OLED 공정장비 전문업체로, OLED 등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9년 1월 15일 설립되었다. 동사는 2006년 삼성SDI와 협력하여 OLED 공정장비를 개발하였고, 2009년 OLED 마스크 공정장비 및 봉지 공정용 광학 검사장비를 개발하여 삼성디스플레이 및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면서 OLED 공정장비 전문업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동사의 발행 주식이 2017년 7월 20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다.

■ 주요 주주 및 관계회사

동사의 2020년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의 최대주주는 김주환 대표이사로 동사의 지분 10.54%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 이외에는 SVIC29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9.09%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임원인 김주일 이사가 8.67%, 김명일 이사가 6.07%, 김선태 이사가 4.2%를 보유하고 있는 등 주요 임원진이 자본 참여를 통해 동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동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중국 고객에 대한 장비 A/S를 위해 중국 상해 소재에 현지 법인을 2020년 7월 설립하였다. 또한, 동사는 신규 사업 협업을 위해 비트런에 출자하였으며, 현재 비트런의 지분 28.17%를 보유하고 있다.

■ 조직 현황 및 임원 정보

동사의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등기임원 4명과 상근 미등기임원 6명, 직원 247명으로 총 25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는 2001년 5월 공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전자팀, 광학팀, 장비지원팀, 장비팀, S/W팀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디스플레이 장비를 포함해 장비에 사용되는 컨트롤러, 드라이버 등의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김주환 대표이사는 기계공학 학사학위자로, 아남산업의 반도체기계사업부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스텍 사업부장을 거쳐 현재 동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등기이사인 김주일 연구소장 및 김명일 생산본부장, 김도형 개발총괄책임자 등 동 업계 중 경력을 보유한 임원진이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동사 제품의 생산을 총괄하고 있다.

[표 1] 동사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직별 주요 업무

조직명	주요 업무
전자팀	장비 관련 전자부품 및 소프트웨어, 펌웨어 개발 업무
광학팀	신규 검사광학계 관련 기술개발 업무
장비지원팀	장비 신제품 기획 업무
장비팀	장비 제작, 셋업 및 개발 지원 업무, 생산기술 개발 업무
S/W팀	장비 검사 알고리즘, 장비 CIM ¹⁾ 프로그램 개발 업무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 주 사업영역 관련 핵심기술 및 주요 제품

동사는 1999년 설립 이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2009년 이후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장비를 납품하면서 사세를 확장하였다. 이후 2014년 OLED 마스크 측정기 개발을 시작으로 장비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장비에 적용되는 간섭계, 드라이버, 광컨버터 모듈, 컨트롤러 등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동사 제품에 적용하였다.

동사의 주요 제품군은 크게 OLED 장비, Non-OLED 장비, 기타 부품으로 구분되며, OLED 장비는 공정에 따라 마스크 공정장비, 글라스 검사 공정장비로 나뉜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OLED의 패턴 증착을 위한 모바일용 분할 메탈 마스크 공정장비, 글라스 검사공정과 관련된 공정장비이다. 또한, 동사는 OLED 장비 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용 IR필터 검사기, 반도체 관련 펠리클 검사기, 헬스케어용 혈당측정시트 검사기를 제조하여 관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비전 검사에 필요한 모듈과 부품 또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주요 사업영역 및 제품



*출처: 동사 홈페이지

■ 매출실적 현황

동사는 OLED 공정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비 사업은 고객의 공정 사양에 맞춤으로 제작되는 주문생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동사의 매출은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장비 투자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수주 상황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큰 편이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0.09)에 따르면, 동사는 2019년 재무제표 기준 총 850.6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며,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2019년 매출액보다 높은 926.7억 원을 기록하였다. 품목의 경우 OLED 장비가 동사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2018년 장비 투자 저조로 OLED 장비 매출이 233.8억 원에 그쳤으나, 이후 2019년 576.8억 원, 2020년 3분기 누적 843.9억 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내수 및 수출 비중은 수주 현황에 따라 변동이 큰 편이나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 내수 36.1%, 수출 63.9%의 비중으로, 내수보다 수출에 의한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OLED 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공정장비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동사의 유형별 매출액 및 비중

매출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분기(누적)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제품 매출	OLED 장비	827.8	90.5	233.8	65.9	576.8	67.8	843.9	91.1
	Non-OLED 장비	52.7	5.8	40.0	11.3	61.4	7.2	8.8	0.9
	비전 모듈 및 부품	31.4	3.4	46.4	13.1	33.7	4.0	40.8	4.4
상품 및 기타 매출		2.4	0.3	34.4	9.7	178.7	21.0	33.2	3.6
합계		914.3	100.0	354.6	100.0	850.6	100.0	926.7	100.0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동사의 내수 및 수출액과 비중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분기(누적)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매출액 (억 원)	비중 (%)
내수	881.6	96.4	185.8	52.4	356.0	41.9	334.6	36.1
수출	32.7	3.6	168.8	47.6	494.6	58.1	592.1	63.9
합계	914.3	100.0	354.6	100.0	850.6	100.0	926.7	100.0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1)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의 약자로 제조, 개발, 판매로 연결되는 과정을 일련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한 생산관리 시스템을 의미함

II. 시장동향

OLED의 수요 증가로 성장하는 디스플레이 시장, 중국의 시장 점유율 상승

동사의 목표시장은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시장이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의 수요 증가로 인해 시장 확대가 전망되며, 중국의 정책적 지원 및 생산라인 증설로 OLED 장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방산업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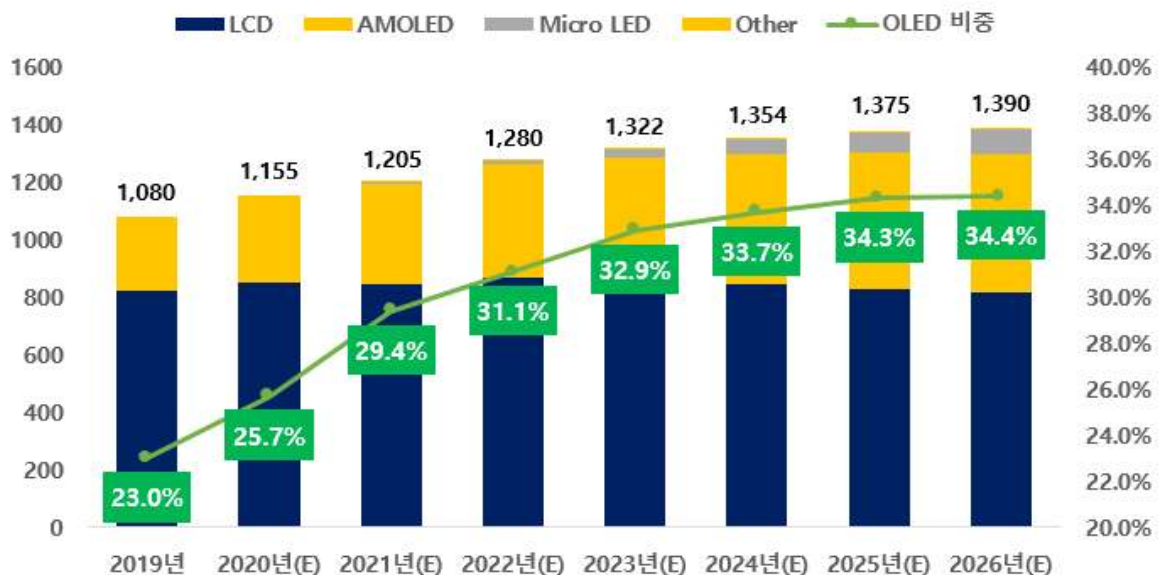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산업은 브라운관 TV의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에서 2015년의 PDP, LCD 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투자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시장 내 주력 제품의 교체 주기가 점차 빨라지는 특징이 있다.

동사는 OLED 공정장비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어, 동사의 매출실적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의 전후방산업은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등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 디스플레이’로 구성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는 장비 투자와 직결되어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이다.

■ 점차 축소되는 LCD와 이를 대체하며 증가하고 있는 OLED 및 Micro LED 시장

[그림 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디스플레이 시장통계(원출처: OMDIA), NICE디앤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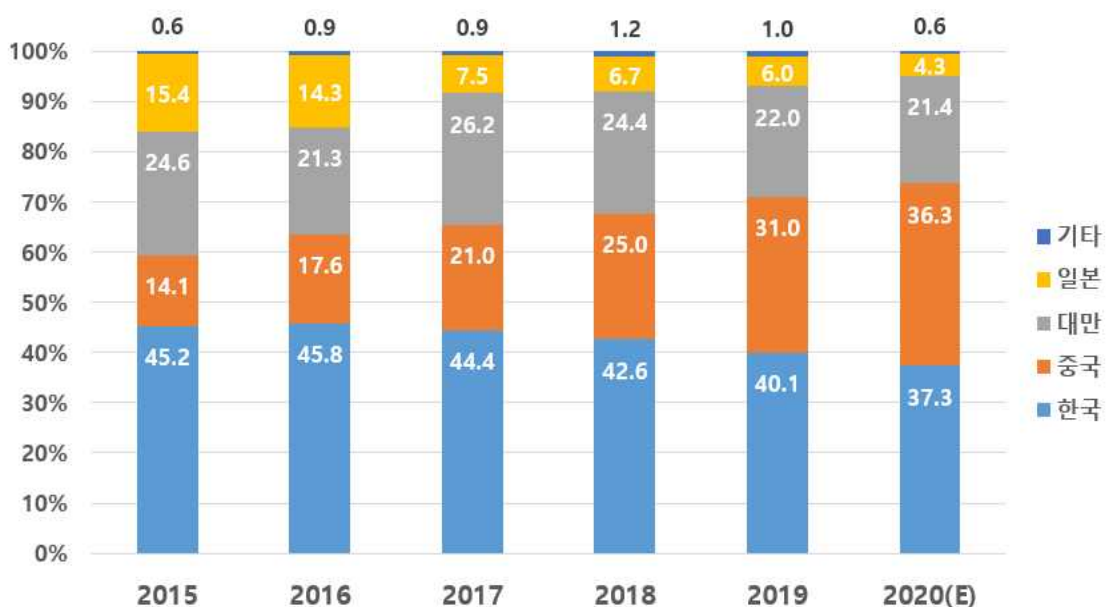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게시된 디스플레이 시장자료에 따르면, LCD, OLED 및 Micro LED와 기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2019년 1,08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향후 2026년까지 1,39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시장 동향 중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소형 및 대형 패널을 전부 독식했던 LCD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OLED가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모바일 기기 등 소형 패널에서만 OLED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향후 기술력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대형 패널에서도 OLED가 LCD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에는 OLED에 비해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아 수명이 길고, 발광효율이 높으며, 화면 색 발현에 필요한 컬러필터 또는 편광판이 필요하지 않아 디스플레이를 더 얇게 제조할 수 있는 Micro LED 또한 점차 시장점유율이 유의미한 수치로 증가할 전망이다.

■ OLED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중국,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한 점유율 확대 시도

과거 중국 업체의 대규모 LCD 공장 증설로 LCD 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한 국내 업체는 OLED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이로 인해 시장 선점 효과를 창출하며 국내 업체가 세계 OLED 시장을 95%까지 점유하였다. 하지만 LCD 시장의 주도권을 얻은 중국이 COVID-19의 여파를 이겨내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OLED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LCD 외에도 OLED 산업에 대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예고하고 있어 OLED 시장 내 중국의 점유율 또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스플레이 시장 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2015년 14.1%에서 2019년 31.0%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6.3%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출하금액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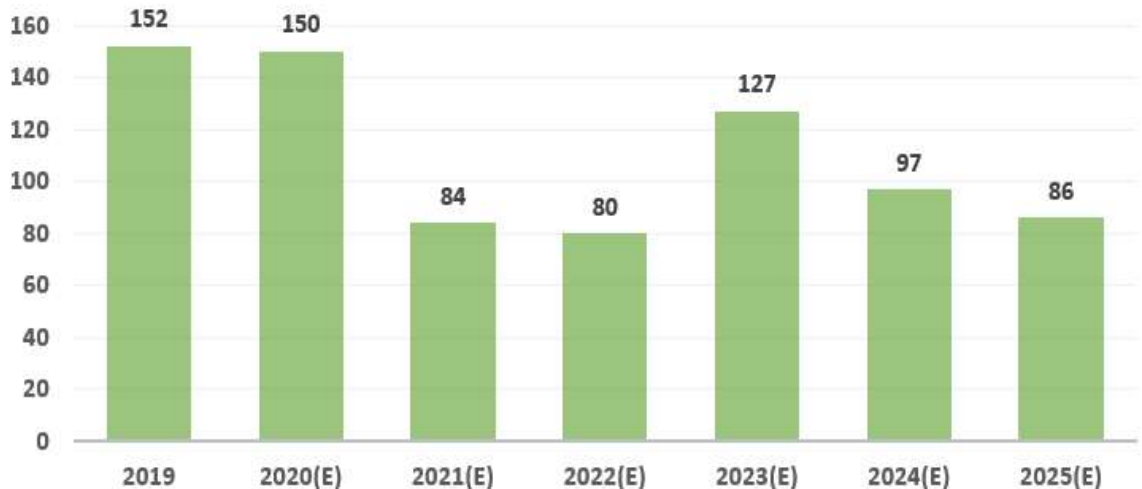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디스플레이 시장통계(원출처: OMDIA), NICE디앤비 재가공

■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계되어 등락을 반복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디스플레이 장비는 디스플레이의 후방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산업과 큰 연관성을 지니며, 디스플레이의 수요 증가에 선행하여 장비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을 이루기 전에 장비 산업이 호재를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최근 전 모델에 OLED가 탑재된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가 폭발적 수요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아이폰에 사용되는 OLED를 납품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OLED 라인 증설 및 장비 투자로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가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5G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모바일 기기 등에서 OLED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응답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낮아 차세대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장비 투자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디스플레이 시장통계(원출처: InformaTech), NICE디앤비 재가공

2021년 이후 LCD 장비 수요 급감에 따라 전체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이 2020년 15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84억 달러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9년 및 2020년에 증설된 OLED 라인의 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교체주기 등을 감안하면 2023년 127억 달러의 규모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소형 패널에는 대부분 OLED가 LCD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어 OLED 장비 시장은 대체적으로 호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규모는 장비 교체주기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보다는 정책적 지원 및 투자 지속, 주요 제품에 대한 경쟁업체는 소수

동사의 주력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국가 R&D 과제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동사의 영업활동에 정책적인 부정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사의 주력 제품인 OLED 마스크 인장기 제조사업 관련 경쟁업체로는 케이피에스와 한송네오텍이 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한승네오텍의 경우 총매출액의 68.5%가 OLED 마스크 인장기를 포함한 장비 매출이나 2019년 기준 총매출액이 215.2억 원 규모이며,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케이피에스는 총매출액의 91.3%가 OLED 마스크 인장기 매출이나 2019년 기준 총매출액 141.9억 원 규모이다. 국내 경쟁업체가 소수이며 동사가 OLED 마스크 인장기에 대해서는 약 70%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바, 동사의 주력 제품은 현재 국내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독점에 근접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Ⅲ. 기술분석

OLED 마스크 인장기 등 증착 공정장비 기술 보유

2006년 삼성SDI와의 OLED 관련 장비 개발 이후 OLED 장비 사업에 주력하였고,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 인장기 및 검사기를 개발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였으며, OLED 장비에 포함되는 요소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LCD를 대체하고 있는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개발되는 QLED, Micro LED

디스플레이는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 1950년대 브라운관 TV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PDP, LCD의 평판 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는 OLED, QLED 및 Micro LED로 발전되어왔다. 디스플레이는 고화질 및 실감(3D) 영상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더 낮은 전력 소모량, 더 얇은 두께, 더 가볍고 유연하게 개발된 모듈이 각종 센서와 결합되어 복합 입출력 성능을 갖추게 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디스플레이의 종류 및 특징

종류 및 개요		특징
CRT (Cathode-Ray Tube)	브라운관 또는 음극선관으로 불리며 전기신호와 전자빔의 작용에 의해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공정 및 구동 방식이 간단하고 저렴 화상의 왜곡 방지 및 초점 향상을 위해 일정 두께 이상이 요구되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거움
PDP (Plasma Display Pannel)	2장의 유리판 사이에 가스 튜브를 배열하고 플라즈마 현상을 유도하여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표현력이 우수하고 화면 응답 속도가 빠르며 잔상이 적고 대형화에 유리 높은 전력 소비량, 냉각팬으로 인한 소음 발생, LCD 대비 짧은 수명, 소형 제품에 부적합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라고 불리며, 백라이트가 발하는 빛을 규칙적으로 배열한 수많은 패널이 전면에서 조절하면서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휘도, 낮은 전력 소비량, 응답 속도 개선, 소형/대형 패널 모두 제작 가능, 가격경쟁력 보유 PDP에 비해 장점이 많아 평판 디스플레이의 대표주자로 오랜 기간 사용됨
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형광성 유기화합물을 얇게 발라 영상신호를 처리해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하지 않아 더 얇고 전력 소모량이 적으며, 색재현률 및 명암비가 우수하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 유기물질 수명이 짧아 블루라이트 번인 현상이 발생하며, 대형 패널에는 다소 부적합
QLED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	퀀텀닷(양자점)이라는 수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입자 자체를 크기를 조절해가며 발광시켜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LED에 비해 무기물로 구성된 발광층 사용해 밝기와 수명, 번인 현상에 유리, 색 순도가 높아 더 많은 색 구현 가능, 대화면에 유리 OLED에 비해 명암비, 응답 속도, 전력 소모량이 불리한 단점 존재
Micro LED (Micro Light-Emitting Diode)	칩 크기가 10~100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제작되는 LED를 배열하여 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소자를 사용하여 휘도 및 수명, 응답 속도 면에서 유리,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 미세한 LED를 기판에 전사하는 데 높은 비용 소모, 많은 LED 사용으로 불량 화소 발생 시 치명적

*출처: 디스플레이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04), NICE디앤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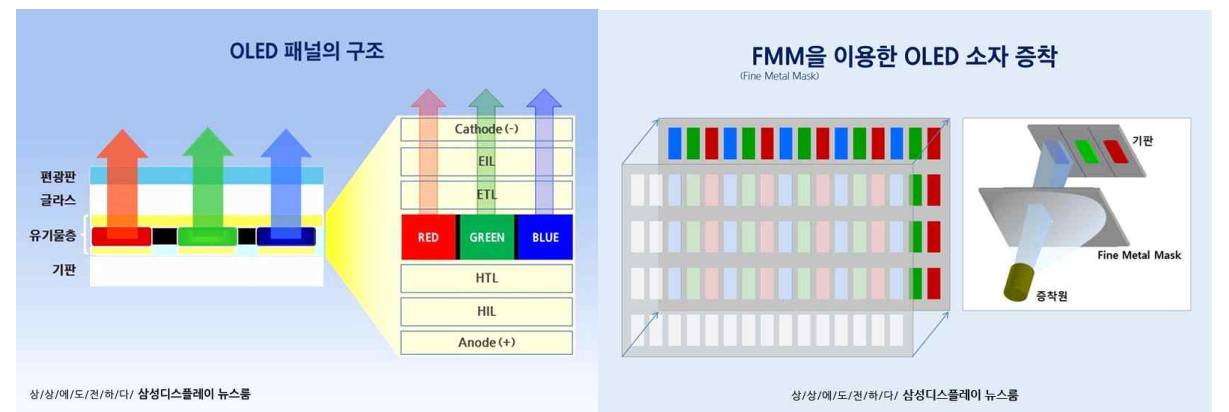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패널 중 최근 가장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널은 LCD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OLED의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LCD에 비해 낮아 가격대가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대다수의 패널에는 LCD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OLED가 LCD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적고, 광원인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이하 BLU)이 필요 없으며, 시야각이 넓어 어느 각도에서도 동일한 색 재현력을 가지고, 응답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중소형 패널 부문에서 LCD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중소형 패널 대비 장시간 사용되는 대형 패널의 경우, 특유의 유기물질 수명 문제로 인해 OLED의 사용이 다소 부적합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QLED 및 Micro LED와 같은 패널들이 개발되고 있다.

■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공정인 OLED 증착 공정

OLED는 유기물층 속에 있는 정공(Hole)과 전자(Electron)가 유기물 사이의 발광층에서 만나 안정화를 이루면서 발광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면을 출력한다. LCD는 BLU를 이용해 발하는 빛을 컬러필터를 통해 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명암비와 색 재현률이 낮으며, 두께가 두꺼워지는 반면, OLED는 한 픽셀 내에 배치된 LED의 자체 발광과 삼원색의 조합을 통해 적색, 녹색, 청색 외 다양한 색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OLED의 제조를 위해서는 기판 위에 필요한 물질을 쌓아나가는 적층 방식을 사용한다. 우선 전류를 흐르게 할 기판에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를 형성하고, 전류에 따라 빛과 색을 발하는 역할을 할 유기물층을 쌓고, 그 위에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유기물층을 보호하기 위한 글라스를 덮어 봉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정이다. OLED는 BLU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CD에 비해 공정 흐름이 간략한 특징을 보이는데, OLED의 가장 핵심적인 공정은 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할 유기물층을 형성하는 증착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OLED 패널의 구조와 FMM법을 이용한 OLED 소자 증착 개요도



*출처: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홈페이지

증착 공정에서는 증착 방법에 따라 용액법, FMM(Fine Metal Mask)법, 레이저법 등을 사용한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마스크 인장기, 검사기 등 마스크 관련 장비가 적용되는 FMM법은 마스크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을 낸 얇은 철판을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특정 위치로 RGB 픽셀이 증착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마스크는 정확한 위치에 픽셀이 형성되도록 증착원이 증착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가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사의 주요 제품인 마스크 인장기는 FMM법을 이용한 증착 공정에서 마스크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장비이며, 동사는 마스크 인장기 외에도 마스크의 수리, 검사 및 측정을 위한 제반 장비들을 개발하여 FMM법을 이용한 증착 공정을 수행하는 OLED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봉지 공정을 통해 유기물층을 보호하도록 덮은 글라스가 이물질이 삽입되는 등 불량한 부분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글라스 검사 공정장비들을 개발하는 등 OLED 공정장비를 전문으로 공급하고 있다.

■ OLED 마스크 인장기 등 증착 공정용 마스크 관련 장비 기술력 보유

동사는 유기박막의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 관련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및 상용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삼성SDI와의 OLED 장비 협력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사의 주요 고객인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특히, OLED 장비 중 마스크 측정기를 2015년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하였으며, 이후 마스크 인장기, 검사기 등의 증착 공정용 마스크 관련 핵심장비를 개발하여 주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에도 동사는 장비에 적용되는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컨트롤러, 드라이버 등의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연구개발 수행 실적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OLED Photomask AOMIS (2019년 3분기 ~ 2020년 4분기)	- OLED Photomask AOMIS 장비개발의 진행을 병행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를 구축
분산형 CAN모터 중형급 드라이버 개발 (2019년 3분기 ~ 2020년 1분기)	- 소용량보다 더 큰 토크를 필요로 하는 모터의 사용 필요성에 따라 중형급 모터 컨트롤러를 개발
CIS 피에조 컨트롤러 개발 (2019년 1분기 ~ 2019년 3분기)	- 반도체 XY축 높이 데이터에 대한 피에조 제어 컨트롤러 개발
조명 딜레이 컨트롤러 개발 (2018년 4분기 ~ 2019년 1분기)	- 3채널 조명이 동시에 켜지지 않고 딜레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컨트롤러 개발
레이저 리페어 및 마스크 검사장비 개발 (2017년 2분기 ~ 2019년 1분기)	- 레이저를 통한 마스크 검사 및 리페어 가능 장비 개발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T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마스크 인장기의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스크 용접장치가 마스크에 힘을 가해 밀착시키면서 인장함에 따라 마스크가 마스크 프레임으로부터 들뜨는 문제를 개선하였고, 마스크에 가하는 힘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하였다. 또한, 분할로 제작된 마스크를 용접하기 전에 틈새를 막아주기 위한 커버 스틱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서포트 스틱을 용접하는 장비인 마스크 틈새 장변 인장기의 경우 동사의 제품은 로드셀 파손을 저감하고 균일성이 향상되도록 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글라스 검사공정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합착 검사기, 합착이물 검사기 또한 AOI(Automated Optical Inspection, 자동 광학 검사)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글라스의 불량 여부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매출액 대비 3%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지속

동사의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년 22.1억 원 이후 2019년 29.7억 원, 2020년 3분기에는 31.1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인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매출액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3% 정도의 비율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장비 관련 제반 기술과 장비에 적용되는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사는 ‘3차원 영상 측정장치’, ‘프레임 가압장치’, ‘감시용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 장치’ 등을 포함한 국내 특허권 총 32건을 보유하고 있다.

[표 6] 동사의 연구역량 지표

연구개발투자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분기
매출액(억 원)	914.3	354.6	850.6	926.7
연구개발비(억 원)	24.4	22.1	29.7	31.1
연구개발 투자비율(%)	2.7	6.2	3.5	3.4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적(건 수)	32	0	0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및 분기보고서(2020.09), KIPRIS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OLED 마스크 장비 관련 기술력 및 높은 시장점유율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확대를 기회로 거래처 다변화 및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필요

[그림 6] SWOT 분석



IV. 재무분석

중국의 플렉시블 OLED 신규 투자로 2020년 3분기까지 성장세 지속

2019년 중국 패널 제조사의 대규모 플렉시블 OLED 마스크 인장기 수요에 힘입어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9.9% 성장하였고, 흑자로 전환하였다. 또한, 2019년 이월 수주 물량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로 2020년 3분기(누적)까지 동사의 매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 OLED 마스크 인장기가 매출의 65% 이상을 차지

동사는 OLED 디스플레이 장비인 마스크 인장기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비전옥스(Visionox), 샤먼 티안마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Xiamen Tianma Display Technology), 셴젠 차이나스타 옵토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Shenzhen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등의 국내외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을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다. 특히, 세계 중소형 OLED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디스플레이는 동사와 삼성SDI의 OLED 장비 협력 개발 이후 2009년부터 OLED 마스크 공정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동사의 전통 협력업체이다.

2019년 기준 품목별 매출 비중은 제품 79.0%(OLED 장비 67.8% 포함), 상품 및 기타 21.0%이고,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41.9%, 해외(아시아) 58.1%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7]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별도기준)

항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3분기	2020년 3분기
매출액	914.3	354.6	850.6	657.2	926.7
매출액증가율(%)	79.7	-61.2	139.9	176.1	41.0
영업이익	156.2	-17.1	77.0	79.9	280.4
영업이익률(%)	17.1	-4.8	9.1	12.2	30.3
순이익	121.2	-10.2	84.4	95.7	212.1
순이익률(%)	13.3	-2.9	9.9	14.6	22.9
부채총계	202.7	126.3	259.7	201.2	226.3
자본총계	521.9	525.6	607.8	601.2	817.6
총자산	724.6	651.9	867.4	802.4	1,043.9
유동비율(%)	163.6	112.3	227.1	251.7	175.2
부채비율(%)	38.8	24.0	42.7	33.5	27.7
자기자본비율(%)	72.0	80.6	70.1	74.9	78.3
영업현금흐름	105.5	-60.9	-15.9	108.8	373.9
투자현금흐름	-225.5	48.4	-40.6	-24.5	-27.4
재무현금흐름	235.2	-557.7	-1.2	-0.2	-11.9
기말 현금	174.9	107.5	523.3	194.1	378.5

※ 분기: 누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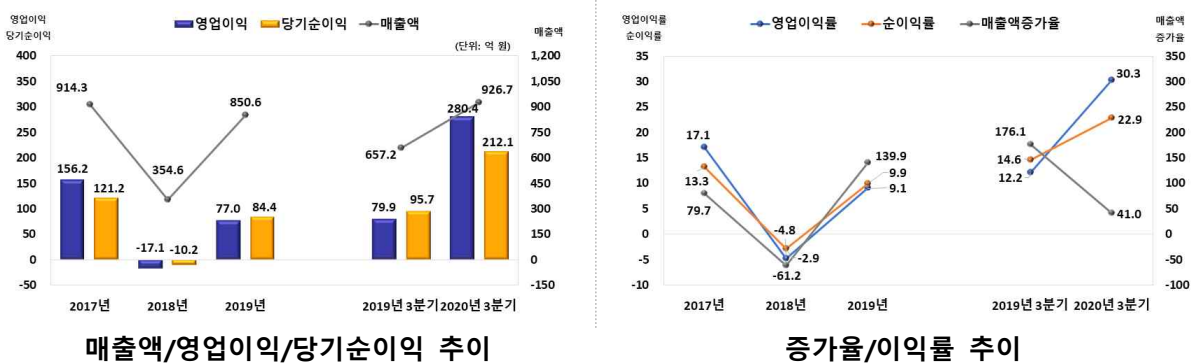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 2019년 중국의 플렉시블 OLED 장비 신규 투자 수요 증가로 외형 회복

전방산업의 특성상 발주사의 투자 수요에 의해 연간 실적이 결정되고 있으며, 2018년 매출액은 디스플레이 시장 전반의 투자 수요 위축으로 전년 대비 61.2% 감소하였지만,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들의 플렉시블 OLED 신규 투자 수요에 힘입어 2019년 전년 대비 139.9% 증가한 85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2017년 수준의 외형을 일부 회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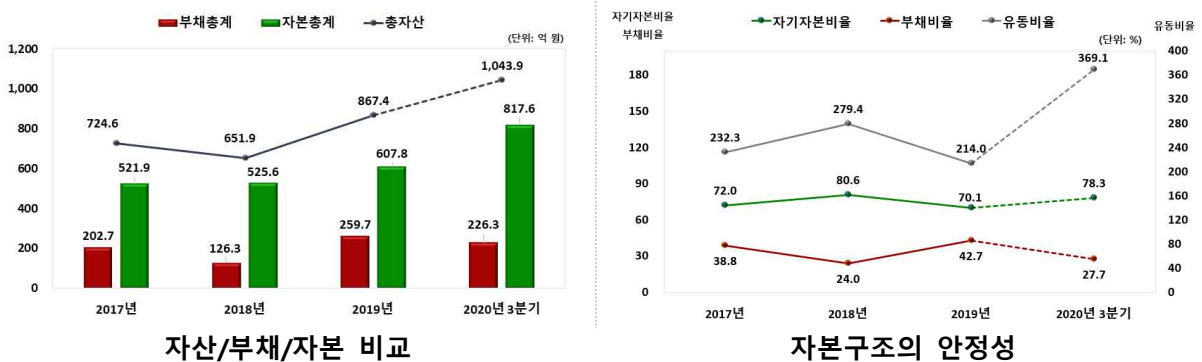
2018년 매출액 하락으로 인건비, 연구비 등의 고정비 부담이 상승하며 적자로 전환한 바 있다. 2019년 매출실적의 회복으로 전체 영업비(매출원가 및 판매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9.1%를, 금융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은 9.9%를 각각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하였다.

[그림 7]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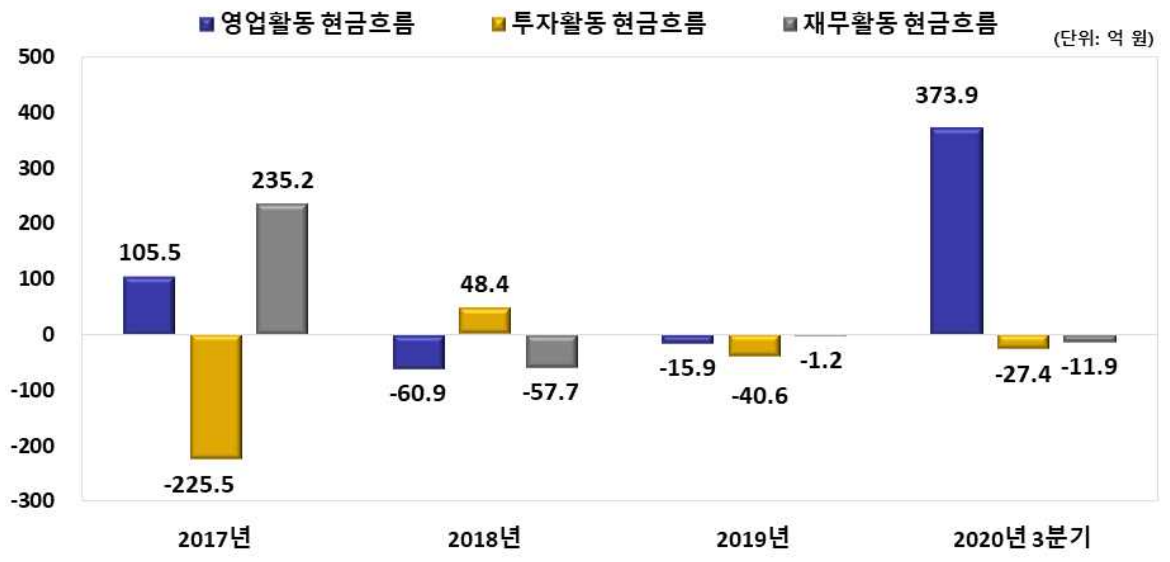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2019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기업의 플렉시블 OLED 시장 진입을 위한 장비 투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공장 설립계획에 따른 투자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으로 이월된 잔고와 신규 수주분의 영향으로 3분기까지 매출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3분기(누적) 매출액은 2019년 연간 매출액을 상회하는 926.7억 원(QoQ +41.0%)을 기록하였고, 스테이지(평균가: 2019년 3분기 209백만 원, 2020년 3분기 191백만 원) 등 주요 원자재의 단가 인하에 힘입어 매출액영업이익률 30.3%, 매출액순이익률 22.9%를 각각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더욱 향상되었다.

■ 2019년 모든 사업활동에서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

2019년 당기순이익의 시현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등 현금유출이 없는 영업자산의 증가로 인해 영업활동 상 현금흐름이 전년에 이어 음(-)을 기록하였고, 유형자산 취득 등으로 인한 투자활동 상 현금유출과 자기주식취득으로 인한 재무활동 상 현금유출로 투자활동현금흐름과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모두 음(-)을 기록함에 따라 동사의 현금성 자산은 기초 10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림 9]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K-IFRS 별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분기보고서(2020.09), NICE디앤비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OLED 수요 증가를 통한 수출 실적 호재, 향후 매출실적 성장 가능성 기대

현재 OLED와 장비 투자 수요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사는 마스크 인장기 분야의 독점적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바, OLED 시장 성장에 따른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의 수혜적 매출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 OLED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및 중국 업체와 장비 공급계약 다수 체결

현재 OLED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중소형 모바일 기기 패널 시장에서 LCD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또한, 플렉시블, 폴더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OLED의 시장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사는 OLED 생산에 필요한 마스크 인장기와 관련하여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OLED의 투자 수요 증가 및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라인 증설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0월 국내 주요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생산라인인 ‘Q1’ 구축에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동사는 ‘Q1’ 라인 구축과 관련해 232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 공시 이후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이 COVID-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OLED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이후 2019년부터 50% 이상을 넘어섰던 동사의 수출 비중이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중국 업체로의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3월에는 중국 ‘우한 차이나스타 광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Wuhan China Star Optoelectronics Semiconductor Display Technology)’ 와 120억 5,760만 원 규모의 OLED 공정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1년 1월에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샤먼 티안마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Xiamen Tianma Display Technology)’ 와 2019년 총매출액의 19.2%에 해당하는 163억 7,800만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 실적의 호재를 보이고 있다.

■ 2020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동사의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27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하나금융투자(2020.05.15)는 동사의 2020년 매출액을 1,114억 원(YoY +32%), 영업이익을 219억 원(YoY +187%)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매출액 914억 원, 영업이익 156억 원을 상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3년 만에 재개된 삼성디스플레이의 신규 투자로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용 대형 인장기와 중소형 OLED 패널 검사 장비 등을 수주한데 이어 비전옥스 및 티안마 등 중국 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6세대 플렉시블 OLED 투자로 인해 2019년 3분기~4분기 동안의 수주 잔고가 연내 인식되고, 검사장비 등 추가 신규 장비 수주로 인한 가파른 실적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이 높은 중국 패널 장비 메이커향 장비 수주분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추정하였다.

■ OLED 주도의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미래에셋대우(2021 Outlook, 디스플레이)는 2021년 플렉시블 OLED 분야의 투자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으며, 비전옥스, 차이나스타, 티안마 등 중국 업체들 중심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하반기부터 투자(A4-2)가 예상된다. 최근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플렉시블, 폴더블, 롤러블 등 OLED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생산라인 증설과 2020년 중국의 OLED 전략사업 지정에 이은 중국 업체의 활발한 설비투자 등 공급의 확대와 미국 애플사의 2020년 하반기 출시작 아이폰 12의 전모델에 대한 OLED 패널 적용을 시작으로 2022년 아이패드 OLED 채택, 2023년 폴더블 디스플레이 제품 출시 등 풍부한 신규 수요의 대응이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마스크 인장기 시장점유율 70%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으로 인정되고 있는바, 2021년에도 OLED 장비 투자에 기반한 성장의 수혜가 예상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하나 금융투자	BUY	26,000	2020.0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실적은 매출 1,114억 원(YoY+32%), 영업이익 219억 원(YoY+187%)으로 가파른 성장 전망 ■ 2019년 3~4분기에 걸친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6세대 플렉시블 OLED 투자 잔고가 2020년 연내 매출로 모두 인식될 예정 ■ QD 디스플레이 전환 투자 및 중소형 OLED 신규 투자 등 영향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연간 신규 투자가 3년 만에 증가하며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것 		